

# 韓國의 經濟成長： Kaldor法則에서 成長樣式分析까지

文 宇 植

본고는 生産性과 成長率간의 累積的 成長過程이라 불리는 Kaldor의 縮約모형을 構造모델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成長과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低賃金を 통한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을 추구해 왔으나 87년 이후로 高賃金化 및 輸出役割의 減少라는 構造的 危機를 겪고 있다. 과거 선진제국에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포디즘」적 成長체제는 이러한 危機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 相互依存性이 크게 증대되고 國家間 競爭이 심화되는 상황(globalization)하에서는 國內市場과 海外市場간의 구분 자체가 의의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輸出과 內需가 독립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成長양식으로 이행하든 그 방향은 세계시장에서의 競爭力 強化와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高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生産性向上이 消費 増大가 아니라 輸出増大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 序 論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풍부한 勞動力을 바탕으로 한 輸出主導型 戰略으로 高度成長을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 成長樣式은 신흥공업국 혹은 후발국 經濟發展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최근 勞動力不足下에서 賃金이 급등하고 輸出이 成長에 주는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더 이상의 고도성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 회의가 대두되고 있다. 즉 한국 경제가 構造的 轉換點 혹은 總體的 危機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筆者：本院 研究委員

\*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本院의 朴元巖, 朴明浩 博士에게 감사드리며 본고의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한국경제는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經濟構造가 자기를 再生産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장의 두 축을 구성해 온 剩餘勞動力과 輸出이 어떻게 결합되어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는가, 최근의 노동력부족시대를 맞이하여 또 수출이 성장에 주는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高成長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성장이 유지될 수 없다면 어떠한 성장체제로 이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주요 資本主義國家의 成長過程, 특히 제2차 世界大戰後 先進 資本主義諸國에서 高度成長을 가능케 하였던 「포디즘」(fordism)과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자본주의제국의 주요한 성장양식인 「포디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成長樣式을 규정하고 그 構造的 轉換可能性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生産性이 內生的으로 供給되는 巨視模型의 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양식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章에서는 최초로 생산성을 내생적 변수로 파악한 Kaldor의 累積的 成長模型을 살펴본다. Ⅲ章에서는 閉鎖經濟와 開放經濟의 틀 하에

서 이를 構造模型로 확대시킨 Boyer와 Thirwall의 모델을 다룬다. 특히 Boyer의 모델을 통해 전후 선진국의 고도성장을 가져온 「포디즘」의 특성을 규정해 본다. Ⅳ章에서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한국경제의 모델을 추정하고 그 특성을 살핀다. Ⅴ章에서는 한국경제의 構造的 變化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어떠한 성장체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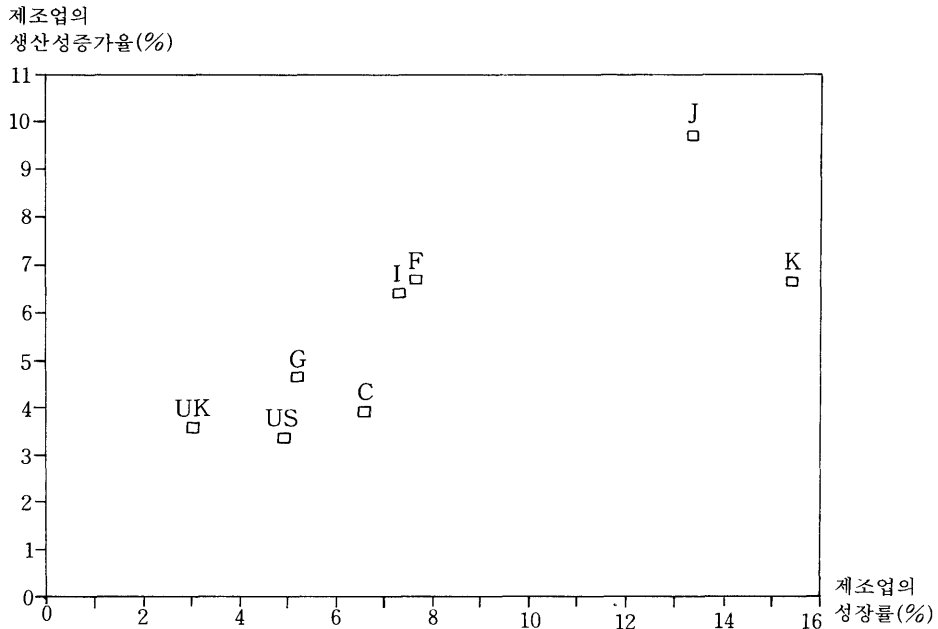
## Ⅱ. Kaldor의 累積的 成長過程

일반적으로 成長樣式에 대한 연구는 生産性이 어떻게 창출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生産性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 經濟成長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Kaldor의 累積的 成長模型(cumulative growth model)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Kaldor는 英國 經濟成長의 沈滯에 관한 연구로부터, 첫째 製造業部門은 다른 모든 부문의 경제성장속도를 지배하는 經濟成長의 原動力(engine of growth)이며, 둘째 製造業의 生産性增加率は 製造業의 成長率에 비례하고, 셋째 經濟全體의 生産性增加는 製造業의 고용증가에 비례하며 非製造業에서의 고용증가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3개의 경제성장가설을 제시하였다.<sup>1)</sup>

1) Kaldor의 법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Journal of Post-Keynesian Economics*, Spring 1983의 Kaldor심포지엄특집 및 Thirwall (1987) 참조.

[圖 1] Kaldor-Verdoon의 法則



註: 1) K: 한국, J: 일본, F: 프랑스, I: 이탈리아, C: 캐나다, G: 독일, US: 미국, UK: 영국

2) 생산성증가율 및 성장률은 불변부가가치기준으로 외국의 경우 1960~73년간 평균치이며, 한국은 1960~90년간 평균치임.

資料: OECD, *Historical Statistics*.

韓國銀行, 『經濟統計年鑑』.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法則은 이른바 Kaldor-Verdoon의 법칙으로 불리기도 하는 제2법칙이다. [圖 1]은 제조업의 생산성증가율과 성장률간의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圖 1]을 보면 선진국(OECD국가)의 경우 제조업의 성장률에 비해 생산성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증가율이 낮게 나타나 양자간 經濟構造의 차이를 시사한다. <表 1>은 선진 5개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패턴을 요

인별로 보다 자세하게 대비한다. 선진 5개국의 경우 1960년 이후 70년대 전반기 동안의 경제성장은 거의 생산성의 상승에 힘입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노동고용의 증가가 생산성 상승보다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성장체제는 크게 대비가 된다.

그러면 Kaldor의 법칙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확대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表 1〉 主要國의 經濟成長要因

(단위 : %)

	經濟成長率	雇傭增加率	生産性增加率
미국(1960~73)	4.3	1.4	2.9
영국(1960~73)	3.8	-0.7	4.5
프랑스(1960~73)	5.9	0.0	5.9
독일(1960~73)	5.1	-1.1	6.2
일본(1960~73)	10.9	2.2	8.7
평 균	6.0	0.4	5.6
한국(1960~89)	8.6	4.7	3.9

資料 : 表鶴吉(1991).

데 있어 두가지 因果關係가 가능하다. 첫번째 해석은 생산성은 外生的으로 주어진 것이며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을 증대시킨다고 보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두번째 입장은 성장률의 상승 또는 총수요확대가 動的 規模의 經濟나 收穫遞增의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고 본다. Kaldor는 이러한 두가지 해석을 결합하여 생산성과 성장률간의 관계를 성장률의 증대가 規模의 經濟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생산성증대가 다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누적적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Kaldor의 累積的 成長過程, 즉 “供給增加에 의해 초래된 需要增加와 需要增加에 반응해서 창출된 供給增加간 相互作用의 過程”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縮約(reduced)된 方程式體系에 의해 요약된다.

$$PR = aQ + \beta \dots\dots\dots(1)$$

$$Q = aPR + b \dots\dots\dots(2)$$

여기서 PR은 생산성증가율, Q는 성장률이다. (1)식은 성장률의 상승이 생산성증대

를 가져오는 인과과정, 즉 Kaldor의 2법칙을 보여주며, 계수 α는 規模의 經濟效果를 나타낸다. 한편 (2)식은 생산성의 증대가 성장률에 미치는 관계를 보여준다. (1), (2)식을 각각 生産性式(PR式)과 成長率式(Q式)으로 부른다.

Kaldor의 방정식체계는 生産性を 內生化시키는 데 하나의 다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경제구조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 構造方程式이라기보다는 그 구조내의 여러가지 경제적 메커니즘을 사상하고 있는 縮約方程式이기 때문에 각국의 다양한 성장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일국의 경제성장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消費, 輸出, 投資, 雇傭 등 주요 巨視變數들을 동시에 결정하는 構造模型의 틀 안으로 Kaldor모형을 확대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은 바로 Kaldor의 累積的 成長을 창출시키는 거시적 성장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양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 Ⅲ. Kaldor-Boyer-Thirwall 模型

위의 縮約方程式體系에 의해 요약되는 Kaldor의 누적적 성장과정은 생산성의 변화가 어떻게 성장률 또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못한다. Boyer와 Thirwall은 이러한 縮約方程式體系를 構造方程式體系로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의 변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傳達經路를 규명한다. Boyer적 전달과정은 2차세계대전후의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잘 설명하며, Thirwall적 전달과정은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양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Boyer의 모형과 Thirwall의 모형을 살펴보자.

#### 1. Boyer의 模型과 「포디즘」

Boyer는 생산성증가가 소비에 주는 효과와 賃金調整樣式을 분석함으로써 전후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경제성장을 「포디즘」(fordism)<sup>2)</sup>으로 특징지었다. 「포디즘」이란 2차 세계대전후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大量生産-大量消費體制로, 심화된 勞動分業과 管理的 賃金決定過程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노동분업의 심화는 2차세계대전후 선진국경제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다. 전후 자본주의제국에서는 計劃과 施行, 生産과 販賣, 마케팅과 자금조달 등 課業의 分擔으로 제조업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예외적인 技術的·社會的 分業이 촉진되었고, 이에 따라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생산이라는 「포드」주의적 생산원칙이 산업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分業 및 特化的 심화는, A. Smith가 강조하였듯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에서 생산성의 전례 없는 상승을 가져왔다.

2차세계대전후 선진국 경제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賃金決定方式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금결정은 노동력의 稀少性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거의 個別的, 競爭的 調整過程으로부터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集團化, 管理化되었다. 그 결과 임금협상에 있어 소비자물가 혹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됨으로써 賃金과 物價의 連動이 일반화되었다. 보다 중요하게, 임금이 生産性的 向上과 밀접하게 連動되고 생산성상승에 일치하는 임금상승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임금은 더 이상 시장변수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sup>3)</sup> 자본과

2) 「포디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glietta (1982), Boyer(1986), Lipietz(1984)를 참조.

3) Boyer는 이러한 경우를 賃金の ‘管理的’ 調整이라 불렀으며, 이에 대해 賃金이 勞動市場의 상황에 신속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競爭的’ 調整이라 명명하였다. Boyer(1986) 참조.

노동간의 이러한 타협은 노동자가 「포드」주의적 생산방법과 기술혁신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한 노동자는 생산성 증가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대량소비를 통한 총수요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총공급은 총수요와 균형을 이루며 높은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

「포디즘」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構造方程式을 통해 살펴보자.

$$PR = \alpha Q + \beta \dots\dots\dots(3)$$

$$N = Q - PR \dots\dots\dots(4)$$

$$Q = \alpha C + bI \dots\dots\dots(5)$$

$$C = c(N + W - P) + d \dots\dots\dots(6)$$

$$I = f + gQ \dots\dots\dots(7)$$

$$W - P = l + mU + rPR \dots\dots\dots(8)$$

여기서 PR은 생산성증가율, Q는 실질생산량증가율, C와 I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율, N은 고용변화율, W는 임금증가율, P는 가격변화율, W-P는 실질임금변화율이며, U는 실업률이고, 소문자는 상수항이나 계수를 나타낸다.

(3)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생산성식(PR式)으로, Kaldor의 2법칙을 나타낸다. 한편  $\alpha$ 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보여

준다. 이의 크기는 外延的 혹은 內包的 蓄積을 구분하는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 즉  $\alpha$ 가 0에 가까울수록 축적체제는 외연적 체제에 가깝다. Boyer & Petit에 따르면 선진국(OECD)에서 1950~77년간  $\alpha$ 의 크기는 대략 0.3~0.8 정도로 나타난다.<sup>4)</sup>

다음 생산성이 성장률(수요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에 대한 정의식 (4)와 더불어 식 (5)~(8)에 의해 표현된다. (5)식은 총수요가 소비와 투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6)식은 소비가 實質賃金所得(real wage bills)의 함수라는 가정으로부터, (7)식은 투자가 加速度原理를 따른다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유도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으로부터의 소비성향은 이윤으로부터의 소비성향보다 크기 때문에 임금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증가시킨다. (8)식은 賃金(實質)이 실업률과 생산성의 함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포디즘」하에서는 임금증가율이 생산성증가율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계수의 값이 높다.

(3)~(8)식의 구조방정식들을 성장률과 생산성증가율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은 축약식이 얻어진다.

$$Q = A PR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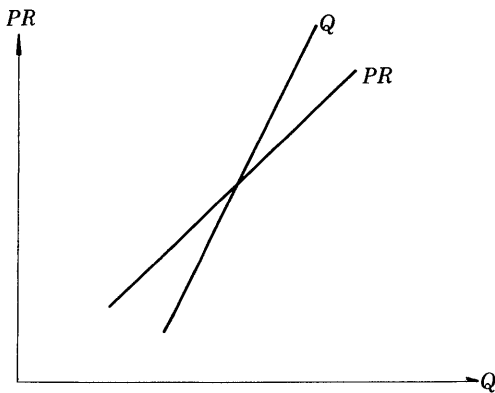
$$\text{단, } A = \frac{ac(r-1)}{1-bg-ac},$$

$$B = \frac{ad + bf + acl + acmU}{1 - bg - ac} \dots\dots\dots(9)$$

4) 미국은 0.33으로 가장 낮고 스웨덴은 0.8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일본은 0.42로 나타났다. Boyer & Petit(1981) 참조.

임금의 생산성 연동계수  $r \geq 1$ 이면 (9)식에서 기울기  $A$ 는 양의 값을 가지며,  $r < 1$ 이면 음의 값을 갖는다.<sup>5)</sup> 결국 (3)식과 (9)식에 의해 유도되는  $PR$ 식과  $Q$ 식의 모양은 계수  $\alpha$ 와  $r$ (혹은  $A$ )에 의존하며 이들 계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몇가지의 성장체제가 가능하나, 논의의 전개를 위해 여기서는 전후 선진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포디즘」만에 분석을 제한하기로 한다.<sup>6)</sup>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포디즘」하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고 생산성증가는 관리적 임금조정을 통하여 고임금을 가져오므로

[圖 2] 「포디즘」하에서의 生産性과 成長率關係



- 5) 위의 1부분(제조업)모형을 확장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2부분모형을 고려하자. 이 경우 임금이 각 산업에서 동일하고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theta$ 라 하면 (9)와 같은 성장률식이 양의 기울기를 가질 조건은 생산성 연동계수가 제조업의 고용비중보다 크면 족하다. 즉  $r > \theta$ 이면 성장률은 생산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oyer(1987, 1988) 참조.
- 7) 보다 자세한 논의는 Thirwall(198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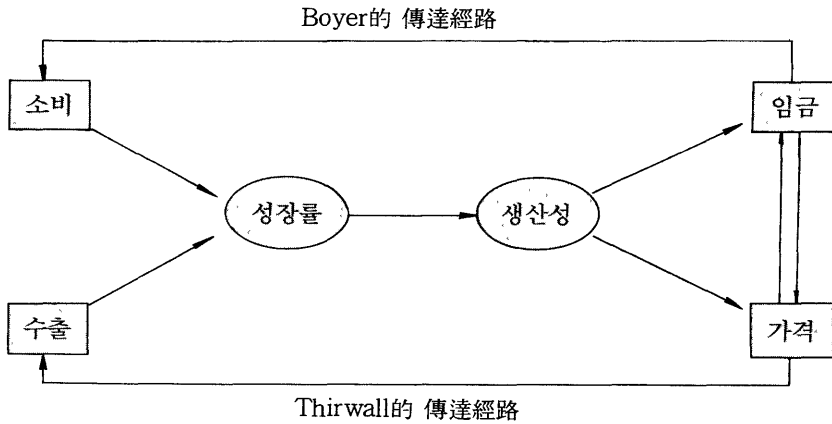
Boyer는 「포디즘」을  $\alpha$ 가 높고  $r \geq 1$ 인 경우로 파악하였다. 「포디즘」하에서  $PR$ 식과  $Q$ 식이 만드는 성장과정은 [圖 2]와 같다.

## 2. Thirwall의 模型과 輸出의 役割

「포디즘」의 모형이 주로 폐쇄경제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온 데 반해 Thirwall은 개방경제를 상정하고 일국의 경제성장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수출을 지적한다. 즉 Boyer의 경우 생산성과 소비수요간 관계를 통한 전달과정을 강조하는 데 비해 Thirwall은 생산성과 수출수요간 전달과정을 강조한다. 수출이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Keynes의 有效需要論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Smith의 剩餘出口論(vent for surplus)에 의해 잘 강조되었다. Thirwall은 소비나 투자가 모두 생산변화에 따라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수출만이 생산변화와 독립적인 변수라고 봄으로써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Thirwall은 생산성증가율이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내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累積的 傳達過程을 경제성장의 原動力으로 제시하였다.<sup>7)</sup>

Boyer와 Thirwall의 전달과정을 도식을 이용해 나타내면 [圖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圖 3] Boyer와 Thirwall의 傳達過程



#### IV. 韓國經濟成長의 基本構造

$$X = g - h(P - E) + iYF + zCAT \dots (14)$$

$$P = j + k(W - PR) + l(PW + E) \dots (15)$$

$$W = s + nP + qU + rPR \dots (16)$$

Boyer의 모형은 내수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Thirwall의 모형은 수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Thirwall적 전달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자를 종합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內生變數는  $N, Q, PR, W, C, X, P$ 로 7개이고, 外生變數는  $IOY, MS, CM, YF, CAT, PW, E, U$ 로 8개이다. 위의 방정식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은 <表 2>와 같다.

분석의 대상이 경제전체 차원이 아니라 제조업부문의 성장률과 생산성증가율간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체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에 앞서 각 행태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 -Kaldor의 2法則

$$N = aQ + \beta + \gamma IOY \dots (10)$$

$$N = Q - PR \dots (11)$$

$$Q = q + aC + bX + dMS \dots (12)$$

$$C = f + c(N + W - P) - eCM \dots (13)$$

생산성의 정의에 관한 (11)식을 (10)식과 결합하면 앞章에서와 같이 제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수요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는 Kaldor의 2법칙이 얻어진다. 또한 技術進歩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다. Kaldor의 기술진보함수에 따라



〈表 2〉 變數說明表

變數名	變數說明	單位
내생변수		
<i>N</i>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
<i>Q</i>	제조업의 산출(85년 기준)	증가율
<i>PR</i>	<i>Q-N</i> 로 유도되는 정의식	증가율
<i>W</i>	제조업의 임금	증가율
<i>C</i>	최종소비지출(85년 기준)	증가율
<i>X</i>	수출(85년 기준)	증가율
<i>P</i>	GNP디플레이터(85=100)	증가율
외생변수		
<i>IOY</i>	총투자 /GNP	비율
<i>MS</i>	제조업산출 /GNP	증가율
<i>YF</i>	미국과 일본의 가중경제성장률	증가율
<i>CM</i>	소비재수입(85년 기준)	증가율
<i>CAT</i>	자본재수입(85년 기준)	증가율
<i>E</i>	대미환율	증가율
<i>PW</i>	수입물가	증가율
<i>U</i>	실업률	비율

경제전체의 投資率(*IOY*)이 기술진보의 代用函數(proxy)로 사용되었다.<sup>8) 9)</sup>

8) 이에 관해서는 Kaldor(1957) 참조.

9) 이외에도 임금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본고의 논의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사상한다. 실제로 임금변수를 도입하였을 경우 다음에서 보는 추정식의 설명력의 향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t*값도 극히 작게 나타나 임금변수를 도입하는 것이 무의미했다. 이론적으로도 이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Kaldor의 이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需要블록

수요블록은 방정식 (12), (13), (14)로 구성된다. (12)식은 제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국내소비와 수출에 의해 최종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前章에서 살펴본 Boyer의 폐쇄경제모형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대신 소비와 수출수요에 의존한다. 투자를 뺀 것은 투자가 제조업의 총수요나 수출 혹은 소비에 비례하여 內生的으로 변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MS*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전체의 변수인 소비와 수출을 제조업의 수요와 관련시켰기 때문이다. (13)식은 국내소비수요(*C*)가 소비재수입(*CM*)과 代替關係에 있다고 하는 가정을 제외하곤 Boyer모형과 동일하다. 추정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임금소득증가율을 경제전체의 소비수요와 관련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소비는 經濟全體의 임금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에 製造業內의 임금소득을 경제전체의 임금소득과 연결시키는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임금소득증가율은 경제전체의 임금소득증가율과 같이 움직이므로 본고에서는 가능한 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정식을 사상하고 간단히 제조업의 임금소득증가율에 소비증가율을 관련시켰다. 한편 소비재수입은 국내소비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였고 실제 추정에 있어서 총수입에서 자본재수입을 감한 모든 수입을 소비재수입으로 간주하였

다. (14)식은 수출수요가 상대가격과 해외 소득의 함수라는 일반적인 가정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상대가격으로서는 국내 GNP디플레이터( $P$ )를 원화표시 대미환율( $E$ )로 나타낸 지표를 사용하였다. 한편 해외소득( $YF$ )에 대한 지표로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양국의 加重經濟成長率을 이용하였으며 자본재수입을 수출함수에 포함시킴으로써 방정식의 설명력을 향상시켰다.

-價格 및 賃金블록

(15)식은 가격이 單位勞動費用에 마크업(mark-up)을 함으로써 결정된다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유도되었다. 또한 개방경제를 가정하므로 해외물가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다. (16)식은 임금결정방정식을 나타내며, 여기서 임금은 물가, 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급상태를 나타내는 실업률의 함수라 가정된다.

지난 30여년 동안(1962~90년) 우리나라의 經濟成長過程을 살펴보기 위해 위와 같은 構造方程式을 추정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방정식은 연립방정식체계이므로 2단계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推定結果>

$$N = -0.10 + 0.90 Q - 0.04 \ln IOY$$

(-1.76) (4.70) (-0.83)

$$R^2 = 0.54, DW = 1.85$$

$$PR = Q - N$$

$$Q = -0.01 + 1.03 C + 0.25 X + 0.60 MS$$

(-0.25) (3.57) (4.35) (4.10)

$$R^2 = 0.79, DW = 1.92$$

$$C = 0.03 + 0.23(N+W-P)$$

(2.75) (3.13)

$$+ 0.18(N+W-P)_{-1} - 0.13 CM$$

(3.03) (-2.81)

$$R^2 = 0.42, DW = 2.23$$

$$X = 0.07 - 0.44 (P-E) + 0.02 YF$$

(1.32) (-1.66) (2.24)

$$+ 0.26 CAT$$

(2.44)

$$R^2 = 0.46, DW = 1.34$$

$$P = 0.02 + 0.63(W-PR) + 0.13(PW+E)$$

(1.07) (4.22) (4.02)

$$R^2 = 0.60, DW = 2.37$$

$$W = -0.19 + 0.58 P + 0.28 P_{-1}$$

(-1.45) (2.75) (-1.39)

$$+ 0.23PR - 0.09 \ln U$$

(0.75) (-2.20)

$$R^2 = 0.56, DW = 1.42$$

(괄호 안의 숫자는  $t$  값)

구체적인 추정과정에서는 소비와 물가함수의 경우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시차를 고려하였다. 방정식들에 대한 決定係數는 대체로 0.4~0.8의 수준으로 추정변수들이 모두 증가율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대체로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방정식 체계내에서 개별변수들의 유의도도 대체로 만족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技術進歩가 雇傭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과 賃金函數決定에 있어서 生産性의 유의성이 예외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

보면 우선 기술진보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진보가 고용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던가 혹은 기술진보로서 사용된 대응변수  $IOY$ 가 적절하지 못한다 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이 임금결정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勞動市場構造가 선진국의 노동시장구조와 동일시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Boyer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특히 독일과 미국) 생산성증가율은 임금(실질)증가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사실상 선진제국의 경우 임금의 결정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고정적으로 사회화된 「포디즘」적 성장체제의 출현에 따라 실질임금과 생산성의 연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sup>11)</sup> 이러한 경제체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 초과노동력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적 임금협상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임금과 생산성간의 제도적 연동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고 판단된다.<sup>12)</sup>

構造方程式體系를 生産性增加率과 成長率간의 縮約式으로 표현해 보자. 앞의 (10)~(16)식을 정리하면 Ⅲ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생산성식과 성장률식이 얻어진다.<sup>13)</sup> 앞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장기균형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체제가 어떠한 축약식으로 요약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R = 0.10Q + \{0.10 + 0.04IOY\} \dots\dots\dots (17)$$

$$Q = -0.25PR + \{0.66 + 0.02YF + 0.12CAT - 0.21CM + 1.03MS + 0.19E + 0.43(PW + E) - 0.25U\} \dots\dots\dots (18)$$

우리나라의 성장양식과 관련하여 두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첫째로 주목할 것

10) Boyer(1990) 참조.

11) Cornwall(1983) 참조.

12)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저임금에 기본을 둔 수출증대를 통해 공업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기준의 하향조정 및 노동운동에의 제약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임금교섭에 있어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였고 노사간의 균형이 사용자측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순 및 숙련 전문야에 있어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87년의 6·29를 통한 폭발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이러한 체제는 더 이상 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즉 Boyer의 용어를 빌면 ‘競爭的’인가 아니면 ‘管理的’인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동시장구조 분석은 Bai(1985)에서와 같이 주로 Lewis적 노동시장의 전환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13) 앞章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 (12)~(16)을 결합하여 축약된 성장률식(Q식)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ac(1-k) - bhk](r-1)\} / \{(1-nk)(1-ac)\}$ 로 나타난다. 여기서  $ac(1-k)(r-1) / \{(1-nk)(1-ac)\}$ 는 Boyer적 전달경로에 의한 소비효과를 나타내고,  $-bhk(r-1) / \{(1-nk)(1-ac)\}$ 는 Thirwall적 전달경로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를 대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울기의 부호는 생산성 연동계수  $r$ 과 수출과 소비의 성장에 대한 기여비율  $bhk / ac(1-k)$ 에 의존한다.

은, (17)식에 나타났듯이 성장률 증가가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0.10으로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앞章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그 효과가 대체로 0.3~0.8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이 勞動力을 크게 흡수하는 방식, 즉 外延的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즉 과잉노동력을 안고 있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고용흡수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勞動集約的 産業의 育成에 의한 成長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중반 이후의 重化學工業化推進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적어도 80년대 후반의 본격적 人力不足時代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18)식에서 보듯이 생산성 증가는 성장률과 負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sup>14)</sup> 이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生産性의 賃金連動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生産性增加가 輸出을 增大시키는 효과가 低賃金으로

인한 消費需要減少를 상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sup>15)</sup> 이와 같이 성장률식이 負의 기울기를 갖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성장은 技術開發에 의한 生産性擴大가 아니라 輸出增大나 輸入減少 등을 통한 總需要增大에 크게 힘입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포디즘」양식하에서 외생변수로서 기술개발정책과 총수요증대정책의 효과를 [圖 4]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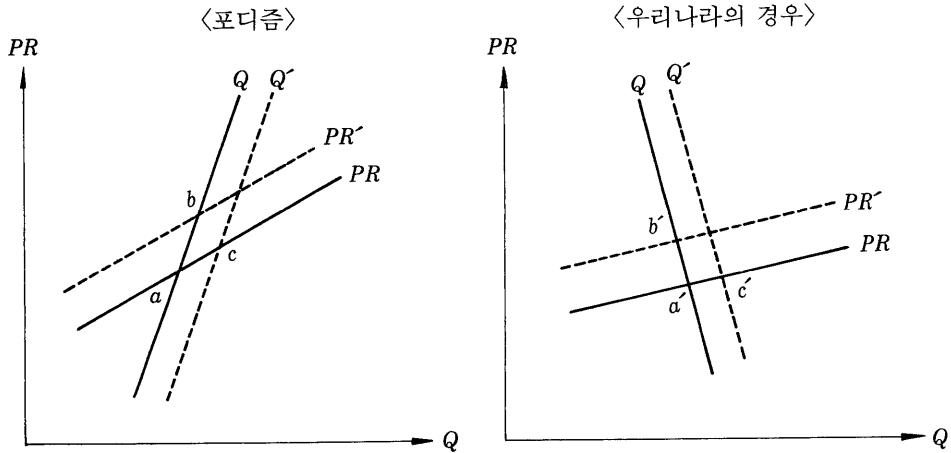
우선 외생변수는 生産性式을 이동시키는 변수(예컨대 技術進步)와 成長率式을 이동시키는 변수(예컨대 輸入減少 및 世界成長率, 換率, 失業率<sup>16)</sup> 변동을 통한 輸出擴大)의 두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양 성장양식에 있어 성장률식(Q식)을 상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외생변수의 변화는 모두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률의 증가로 나타나 그 효과가 성장양식에 관계없이 동일하다(圖 4의 그림에서  $a \rightarrow c$ 의 이동과  $a' \rightarrow c'$ 의 이동 비교). 그러나 지금 技術投資의 擴大와 같이 생산성식(PR식)을 上方向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라면 그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生産性式이 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성장양식하에서는 생산성의 증가와 동시에 성장률의 감소가 나타나며, 반면 「포디즘」하에서는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률이 높아진다( $a \rightarrow b$ 와  $a' \rightarrow b'$ 간의 비교). 이것은 결국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투자의 확대와 같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14) 이러한 관계는 몇가지 비슷한 모델구조하에서도 대체로 성립하며 설령 생산성계수가 陰이 아니더라도 그 계수의 값이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지는 한 본고의 논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5) 생산성 1단위 증가시 Thirwall적 전달경로를 통한 수출증대효과는 0.20단위로, Boyer적 전달경로에 의한 -0.45단위의 소비감소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16) 최근 선진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신축성(flexibility) 회복노력은 실업률의 변화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시도로서 해석할 수 있다.

[圖 4] 技術增大와 需要增大의 影響



〈表 3〉 外生變數의 效果

外生變數 內生變數	YF	E	CM	CAT	U <sup>1)</sup>	IOY <sup>1)</sup>
成 長 率	0.009	0.103	-0.229	0.109	-0.025	-0.009
生 產 性	0.001	0.010	-0.022	0.011	-0.002	0.037
輸 出	0.023	0.317	-0.010	0.268	0.048	0.018
消 費	0.004	0.023	-0.220	0.041	-0.036	-0.013

註: 1)  $\ln U$ 와  $\ln IOY$ 의 1% 변화가 미친 영향.

외생적 요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출확대전락을 추구해 온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된다고 판단된다. 반면 「포디즘」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후의 선진국 경제에서는 기술투자의 증대와 같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나 혹은 수출의 확대와 같은 성장률증가정책이 모두 중요하며 실제로는 前者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

져 왔다.

참고로 우리의 모형에서 고려된 몇가지 외생변수가 성장률과 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表 3〉과 같다. 여기서 세계소득, 실업률, 환율, 소비재수입, 자본재수입 등의 변수는 수출을 통해 成長率式을 변화시키는 외생변수이며, 기술투자는 生産性式을 변동시키는 외생변수이다.

## V. 韓國經濟의 構造的 變化

2차세계대전후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高度成長은 「포디즘」이라 불리는 성장양식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케인즈」경제학의 역사적 중요성도 바로 이러한 「포디즘」하에서의 賃金을 통한 消費와 生産의 연계를 분석하고 持續的 成長의 조건을 밝힌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低賃金에 바탕을 둔 輸出主導體制를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체제는 「포디즘」의 전단계적 성장체제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圖 5]와 [圖 6]에서 보듯이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양식에 있어 構造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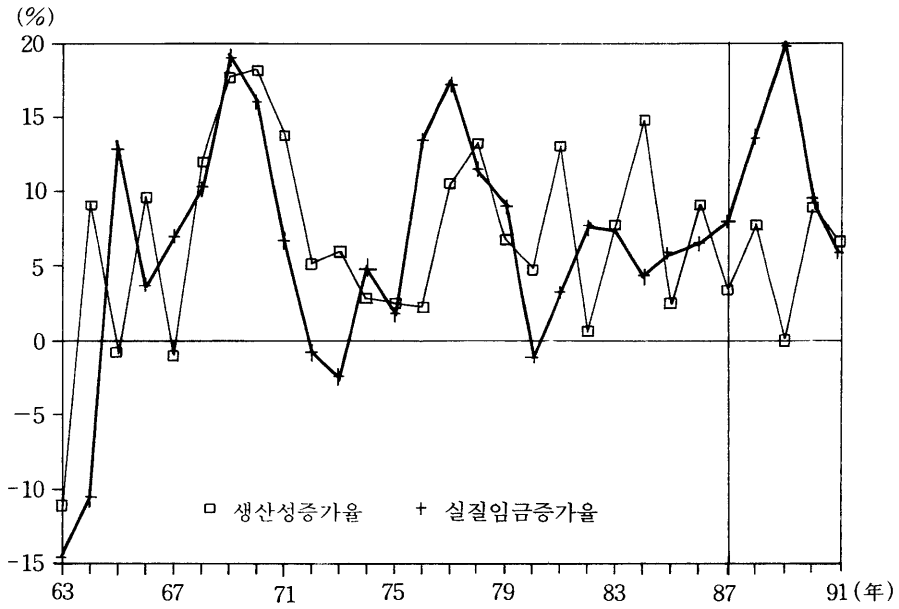
이러한 構造的 變化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자.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로서, 賃金決定方式이 변화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는 勞動組合의 賃金協商力도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勞動市場에서 超過供給壓力이 상존

하면서 노동자가 임금상승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임금이 과잉공급상황하에서 낮게 유지되었고 정부도 수출을 통한 공업화의 면에서 이러한 임금의 조정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87년 勞使關係의 大變革을 고비로 勞動不足이 일반화되고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크게 상승되면서 임금증가율이 생산성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동시에 임금 결정에 있어 생산성과의 관계가 다른 어느 변수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資本勞動간 所得分配도 노동에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결국 노동분배율이 87년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분배율의 상승은 「포디즘」의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內需의 役割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

[圖 5]는 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GNP 디플레이터 기준)의 추세를 보여준다. 80년대 말, 특히 87년부터 90년까지 실질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뚜렷이 알기 위하여 기업경영데이터를 이용하여 임금상승률을 노동분배율의 변화율과 생산성변화율의 합으로 분해한 <表 4>를 살펴보자.<sup>17)</sup> 노동분배율은 보통 노동조합의 交渉力에 의존한다고 가정된다. 즉 교섭력의 변화가 없으면 임금상승률 = 생산성상승률, 교섭력이 강화되면 임금상승률 > 생산성상승률, 그리고 교섭력이 약화되면 임금상승률 < 생산성상승률과 같은 관계가 가정된다. <表 4>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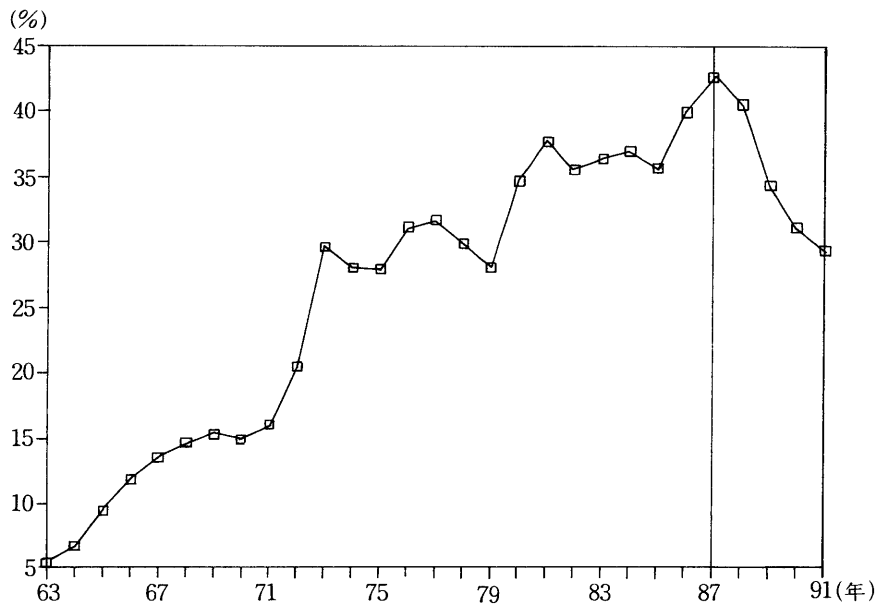
17) 지금  $W$ 를 임금수준,  $L$ 을 고용수준, 그리고  $Y$ 를 산출로 나타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즉  $w = \left(\frac{WL}{Y}\right) \times \left(\frac{Y}{L}\right)$  이 식을 로그미분하면 임금증가율 = 노동분배율의 변화율 + 생산성증가율의 관계가 성립한다.

[圖 5] 生産性と實質賃金變化率의 推移



註: 생산성증가율은 제조업의 불변가격 부가가치기준이고, 실질임금증가율은 GNP디플레이터기준 제조업의 실질임금임.

[圖 6] 輸出比重的 推移



註: 수출비중은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表 4〉 製造業部門의 賃金 및 生産性 推移

(단위 : %)

	1인당 인건비증가율(1)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2)	노동분배율 (3)	(4)=(3)/(1)
81	19.3	28.2	-6.9	-35.7
82	14.3	12.2	1.9	13.2
83	12.4	13.4	-0.8	-6.5
84	12.1	9.5	2.3	19
85	7.5	9.3	-1.6	-21.3
86	9.6	13.4	-3.3	-34.4
87	16.3	17.7	0.6	3.7
88	25.9	21.1	4.0	15.4
89	24.9	19.4	4.7	18.9
90	19.0	18.6	2.2	11.6
91	18.9	16.9	1.9	10.1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表 5〉 輸出企業과 內需企業의 收益率 比較

(단위 : %)

	수출기업		내수기업		수익률의 차	
	(1)	(2)	(1')	(2')	(1)-(1')	(2)-(2')
81	1.09	0.17	-0.66	-1.28	1.75	1.45
82	0.92	0.37	0.84	-0.15	0.08	0.52
83	2.85	1.67	2.60	1.66	0.25	0.01
84	3.48	1.43	2.32	1.10	0.16	0.33
85	2.80	1.80	2.29	0.98	0.51	0.82
86	4.19	2.29	3.21	1.72	0.98	0.57
87	3.80	2.04	3.41	1.84	0.39	0.20
88	4.12	1.53	3.99	2.40	0.13	-0.87
89	1.26	0.84	3.09	1.95	-1.83	-1.11
90	1.48	0.62	2.63	1.70	-1.15	-1.06
91	1.47	0.95	1.84	1.53	-0.37	-0.58

註 : (1), (1') : 매출액경상이익률

(2), (2') : 매출액순이익률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7년 이후는 그 이전에 비해 노동조합 교섭력의 현격한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88년 이후 임금증가율이 계속 생산성을 앞섬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분배율에 있어서 증가가 있었다. 그 결과 88년 이후 총임금증가율의 약 10~19% 정도가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表 4의 (4)열 참조).

둘째로, 輸出이 成長에 미치는 역할의 감소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圖 6]에서 보듯이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87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동시에 內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전에는 수출과 같은 증가추세를 보였던 투자증가율이 수출보다는 오히려 소비증가율과 밀접히 관계되기 시작하였다. 수출과 소비간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輸出企業과 內需企業간의 수익률비교에서도 드러난다.

輸出企業과 內需企業간 수익률추세를 보면 1987~88년을 고비로 수출기업의 수익률이 이전에는 대략 내수기업의 수익률을 상회하였으나 이후에는 거꾸로 내수기업의 수익률이 수출기업의 수익률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87년 이후의 높은 賃金上昇이 價格上昇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國際競爭力과 收益性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말한다. 반면 국내산업의 경우 임금노동자비율의 증대와 더불어 노동자소득비중의 증대는 점점 국내소비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결과 국내

산업은 수요확대효과에 의한 이익증가로 어느 정도 임금비용의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내수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I. 結 論

87년 이후 우리나라는 高賃金化 및 輸出役割의 減少라는 構造的 危機를 겪고 있다. 이러한 危機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선진국에서 나타난 「포디즘」적 성장체제로의 이행은 이러한 構造的 危機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포디즘」적인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73년의 석유파동후 몇몇 국가(일본, 독일)를 제외한 선진국 경제가 높은 失業問題와 低成長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포디즘」적 成長樣式 自體가 오늘날 큰 危機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危機의 原因으로 다음의 두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첫번째 이유는, 「포디즘」적 대량생산방식하에서 더 이상의 生産性增大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졌던 데 기인한다. 규모의 지나친 확대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小規模 生産이 大量生産方式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두번째,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이유로, 輸出과 內需가 독립적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 相互依存性이 크게 증대되고 國家間 競爭이 심화되는 상황(globalization)하에서는 國內市場과 海外市場간의 구분 자체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競爭的 地位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高賃金에 의해 內需市場이 형성된다고 해도 내수시장에서 生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73년 이후 선진국들의 構造調整時 海外市場에서 競爭力을 잃은 産業은 全世界的인 市場의 統合으로 인하여 곧바로 斜陽化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어떠한 성장양식으로 이

행하든 그 방향은 세계시장에서의 競爭力 強化와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技術革新이라든가,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勞動市場의 伸縮性(flexibility) 回復努力도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파악되며 競爭力 強化만이 수요를 창출 또는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 등에 의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것이 消費가 아니라 輸出增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金仲秀, 『賃金の 巨視經濟效果에 대한 實證 分析和 政策的 含意』, 國民經濟制度研究院, 1991.

表鶴吉, 『生産性推計』, 1991.

南亮進, 『日本の 經濟發展』, 鄭英一(譯), 京文社, 1991.

坂田幹男, 「韓國資本主義의 動搖と再編」, 『經濟評論』, 1992.

Amsden, A. H.,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a New Model?" *New Left Review*, Vol. 182, 1990.

Aglietta, M., *Régulation et crises du cap-*

*italisme*, Calmann-Lévy, 1982.

Bai, M. K., *Industri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s in Labor Market: the Case of Kore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Feb. 1985.

Boyer, R.,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La découverte, 1986.

———, "Long Run Growth Revisited: A Neo-Kaldorian Model", mimeo, 1987.

———, "Formalizing Growth Regimes", G. Dosi, et al.(eds.), *Technical Cha-*

- nge and Economic Theory*, France Pinter, London, 1988.
- , “The Capital Labor Relations in OECD Countries: from The Fordist Golden Age to Contrasted National Trajectories”, CEPREMAP, 9020, 1990.
- and P. Petit, “Progrès technique, croissance et emploi”, *Revue Economique*, Vol. 32, Nov. 1981.
- , “Kaldor’s Growth Theories”, CEPREMAP, 8905, 1989.
- Caussat, L., “Croissance, emploi, productivité dans l’industrie américaine”, mimeo, 1981.
- Coriat, B., *Penser à l’envers*, La découverte, 1991. [花田昌宜(譯), 『逆戦の思考』, 藤原書店, 1992]
- Cornwall, J., *The Conditions for Economic Recovery*, Martin Robertson, Oxford, 1983.
- , *The Theory of Economic Breakdown*, Basil Blackwell, 1990.
- Kaldor, N., “A Model of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Dec. 1957.
- Lipietz, A., “Derrière la crise: la tendance à la baisse du taux de profit”, CEPREMAP, 101, 1982.
- , “La mondialisation de la crise générale du fordisme: 1967~1984”, CEPREMAP, 148, 1984.
- Thirwall, A. P., “A Plain Man’s Guide to Kaldor’s Growth Law”, *Journal of Post-Keynesian Economics*, Spring 1983.
- , *Nicholas Kaldor*, Wheatsheaf Books, Brighton, 1987.

빈 면